


 오늘의
게시판

성공 투자전략 무료 강좌

<7일>

▲ '미래 자산설계 및 성공 투자전략' 무료 공개 강좌=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부 '이제는 투자시대, 내게 맞는 자산설계', 제2부 '급변하는 투자환경, 성공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로 나눠 진행.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강강희 소장과 한국밸류자산운용 이재원 전무가 강사로 나서 강연.

▲ 2006 한·일 해양환경학술세미나=오후 4시 목포 해양대 제2공학관 1층 대회의실. 주제는 '해양 오염과 수산해양생물', '해파리의 대량 발생 원인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 '해양 오염에 따른 갯벌 생물의 생산성과 갯벌 조업 운반기 개발' 등에 대해 토론.

▲ 도시 소비자 초청 산지투어=오후 10시부터 (사)광주주부교실 회원 40명이 담양군 수복면 두

<8일>

▲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자원봉사단 발대식=오전 11시 전남도청.

▲ 장흥 다목적 댐 준공식=오전 11시30분 장흥군 부산면 지현리 장흥 다목적 댐 물ழ보관 광장.

▲ 21C 디암포럼=오후 4시30분 디암포럼 문화회관 대공연장. 현고 스님이 강사로 나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상생'이라는 주제로 강연.

▲ 제69회 순천사랑이카데미 강좌=오후 2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임인택 기나안농군하고 전임강사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

▲ 연극 생활의 발견=8~9일 오후 7시30분 궁동 예술극장.

▲ 목요열린 국악한마당=8일

(목)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이정주 초청 판소리 및 가야금 병창.

▲ 육군본부 군악대초청연주회=8일(목) 오후 7시30분 순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복 61주년 기념 연주회로 양악·국악·관현악·성악협연 등 연주. 문의 순천시재향군인회 061-741-2796

▲ 얼굴시진전 '최윤규 포트레이트'=8일~14일 롯데화랑.

▲ 한국화 창작 실기전=9일까 지 조선대 미술관.

▲ 유명별 정든 산하전=11일까지 상계갤러리. 자리산과 설악산 절경 등 30여점 전시.

▲ 꿈, 너에게 말을 걸다 10인전=21일까지 각화문화의 집 문화관람실.

▲ 광주 현대미술 특별기획 초대전=14일까지 문화갤러리.

▲ 무등골 예술시장 프리마켓전 '푸른6월'=13일까지 일곡갤러리.

▲ 5·18 관련 그림 및 사진전=3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장.

▲ 현대사진전 '앵글의 휴먼리티'=25일까지 시립미술관 분관.

▲ 김집수 철예전=8일까지 무등갤러리. 철공예를 위주로 한 다양한 작품 전시.

 역사속의 오늘

▲ 마호멧 세상 떠남(632)

▲ 사유신인 박팽년, 육중에서 세상 떠남(1456)

▲ 노은신 등, 국내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 완간(1481)

▲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멕시코 월드컵 출전을 위한 예선전 뒤 난투극 벌임(1969)

▲ 문교부, 교육용 기초한자 1천781자 선정 발표(1972)

▲ 시인 모윤숙 세상 떠남(1990)



15. 꿈의 축구 제전인 월드컵이 오는 10일 새벽 1시(한국시간) 개최국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달간 펼쳐집니다.

개막전이 열리는 도시는 독일 축구의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이 곳에 있는 경기장인 알리안츠 아레나는 FIFA 월드컵 홈페이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경기장의 하나로 꼽았을 만큼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경기장입니다.

이 곳은 어디까요?

① 뮌헨 ② 런던 ③ 파리 ④ 도쿄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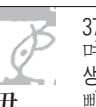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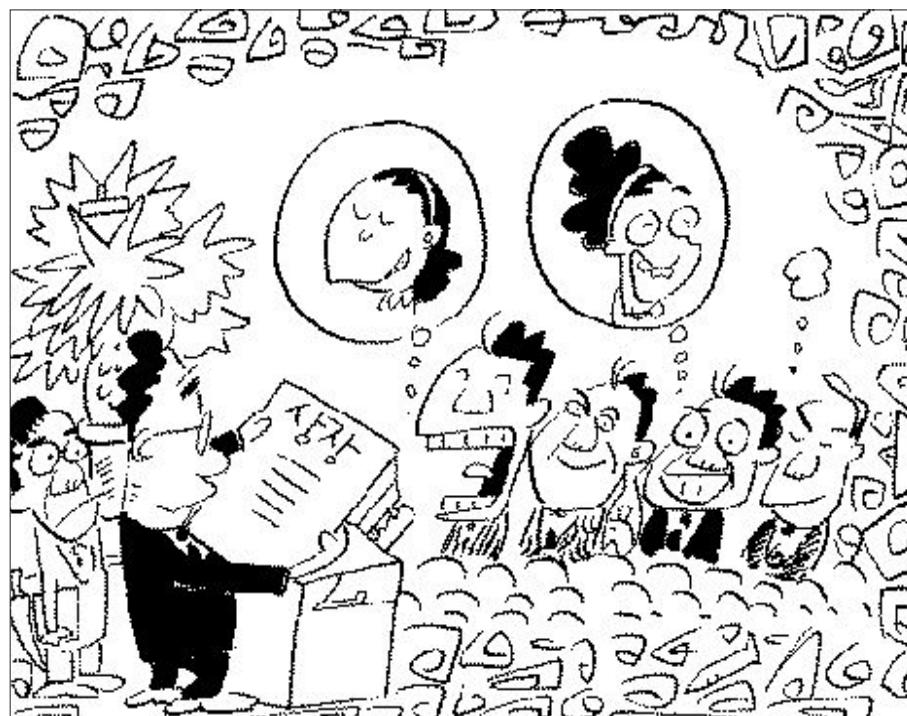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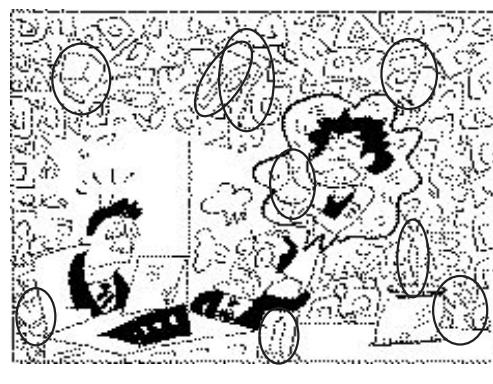
6월 7일(음 5월 12일 丁卯)

36년생 도끼에 밭등 칙힐 수니 근간을 주의하라. 48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60년생 주변에서 시끄러운 문제에 다가온다. 72년생 흡족은 가지고 걸으 한다. 84년생 원거리 여행은 조심해서 행하라.
행운의 숫자 : 05, 3937년생 좋은 일과 연결되는 협상이다. 49년생 바람이 일수니 중정하며 지내라. 61년생 생활에 만족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 73년생 풍류에 훌륭히 허슬세월을 보낼 수도. 85년생 남여간에 이상에 빠질 수니 정신을 차려라.
행운의 숫자 : 01, 2638년생 빠듯다 싶이 많고 상부상조할 기회가 생기나 손길이 걱정된다. 50년생 혼자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62년생 작은 일을 주의하라. 74년생 남의 말을 품풀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8, 3539년생 배우자편에 불편사가 발생한다. 51년생 수족을 살펴보고 자리에 힘쓰라. 63년생 주위의 시기 질투 모함으로 손길이 우려되니 적극 참여는 소심하라. 75년생 우연으로 갈사와 연결되거나 오래는 못간다.
행운의 숫자 : 04, 3240년생 부부간에 언쟁이 발생한다. 오늘은 참아보라. 52년생 가까운 친척으로 손세수가 있을 수다. 64년생 생기 있는 희망이 찾아오는 형상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76년생 육심은 금물, 차분하게 접하라.
행운의 숫자 : 06, 4441년생 문서가 새롭고 승진 영전 경시가 있을 수다. 53년생 모든 일을 즐겁지만 마무리가 어렵구나. 65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에 신중하라. 67년생 협조자가 안 보인다. 혼자서 외로운 주변인들에게 배울어야.
행운의 숫자 : 02, 2842년생 험난한 계획이나 사업에 몰입한다. 54년생 회의장에서 50년생 혼자로 모든 일에 순종한다. 66년생 큰 계획을 중단하고 살피 찾아 집중하라. 78년생 협조자가 생기나 新事은 피하고先吉後凶으로 불편이 기울 수다.
행운의 숫자 : 23, 4343년생 병약한 갑목이다. 피곤이 중해질까 두렵다. 55년생 사기와 영길 수니 신중하게 움직여라. 67년생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준비를 잘하라. 79년생 생애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체해야 하리로다.
행운의 숫자 : 10, 4344년생 흥이 복으로 변한다. 56년생 자신의 불편사가 주변에 까지 미친다. 혼자서 소심하라. 68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밖으로 날아간다. 80년생 복이 흥이 될 수도 있으니 매사를 숙고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행운의 숫자 : 22, 4245년생 부부간에 갈등으로 나타난다. 57년생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내용에 활동을 집중하라. 69년생 생애 불편사가 찾아오니 옛 정을 유지하라. 81년생 생소한 길목에서 결정이 어려우니 과감하게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13, 1646년생 문서와 재물이 새롭게 생겨나니 고맙게 생각하라. 58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이 따로 있다. 60년생 걸 다르고 속 다른 주변인이 방해를 도모한다. 82년생 협체, 수하인으로 인해 불편사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9, 4147년생 새로운 일을 찾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다. 59년생 고복회준의 기쁨은 신진만이 얻는다. 71년생 괴롭히던 사람이 협조자로 변하니 因變福化로다. 83년생 과육은 금물이나 자기의 내실도 껑개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31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숨은그림찾기

<24>



(찾) (아) (보) (세) (요) 종이배, 다리미, 비늘, 음표, 펜촉, 뜯, 물고기, 팽이, 고추

위기 탈출

2회전 제 9보(123~147)

白 김 영 수(5단) 黑 박 정 규(5단)

<호남교사회>

백 ②가 두터운 수
이면서도 공격의 급
소였다. 흑이 상변에
서 살기는 했지만 이
곳을 백에게 얻어맞
아서는 어려운 바둑
이 되었다.
흑 123과 125가
상대의 봉쇄를 벗어
나는 맥집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
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았
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막은
뒤 3으로 젖혀 이어 빨리 삶을 모색해

야 했다. 125로 나가는 바탕에 126과
128의 후된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김영수 5단은 공격 기회를 잡아 흑
대미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기
세가 사뭇 등등하다. 그러나 130으로
는 137의 곳에 젖혀야 했다. 132도
심한 수로 역시 137의 곳으로 젖히는
것이 좋았다.
백이 뒤늦게 136으로 후퇴했으나
흑이 145로 단수를 치게 되어 위기에
서 일단 벗어났다. 이제는 중앙에 떠
있는 흑 대마의 생사가 문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 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 소식

박정상, 전자랜드배 4강 선후

박정상 6단이 지난 4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전자랜드배 원정 8강전에서 투어이너웨이 9단에게 졌다. 140수 끝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4강에 선착했다.

박정상 6단은 최철한 9단과 최구영 9단전의 승자와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최근 대국에서 '철의여제' 뿐이 9단에게 4연승을 거둔 박 6단은 상대전적에서도 6승1패로 강세다.

박 6단은 지난 3일 후지쯔배 8강전에서 중국의 대표기사 창하오 9단을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올해 27승12패로 상승세를 탔다.

대회 우승상금은 4천만원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자 이야기 <280>

효 翩(효빈)

본발을 효, 징그릴 빙

'효빈(效嬪)'은 서시(西施)의 정그리는 얼굴을 동시에 흉내내고자 나온 말이다. 시비와 선악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을 비유한다.

서시는 본래 춘추시대 월(越)나라의 미녀였지만, 월왕 구천(勾踐)이 복수를 위하여 오왕(吳王) 부자(夫差)에게 보냈다. 그런데 서시는 가슴이 따끔 따끔하는 별을 애고통이 심하자, 부자가 고통에 흉유하라 보내주었다. 아름다운 서시의 모습은 고향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가슴앓이 별은 호전되지 않았다. 서시가 동네 길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을 징그리고 있으니, 이를 본 동네 여인 동네가 자신도 저렇게 하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얼굴을 짜우렸다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장자'(莊子)의 '천운편'(天運篇)에 나온다. 장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나 도덕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춘추시대 말기 난세(亂世)에 태어난 공자는 옛날 주(周)왕조의 이상정치를 그대로 노(魯)나라와 위(衛)나라에 재현하여 하였다. 장자는 이와같이 하는 것은 마치 주녀가 서시를 무작정 흉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한 것이다.

굿모닝 잉글리쉬 <662>

Good for you!

정말 잘됐네!

A:I made it! Finally I made it!
B:What happened?
A:I was given the role of Hamlet!

B:Good for you! I wish you success!

A:해냈어, 드디어 해낸 거야!

B:무슨 일인데?

A:햄릿의 역할을 드디어 따냈어!

B:축하해! 성공하길 비네!

I made it : 잘 됐다, 해냈어, 봤어.

(Tell me) what happened.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다오

finally : 마침나, 드디어(at last)</div